

원주시 성남리 당산숲의 현황 및 경관관리 실태 고찰

최재웅* · 김동엽** · 이상화* · 김성기**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Perspectives on the Current Condi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Status of the Dangsang Forests in Sungnam-ri, Wonju

Choi, Jai-Ung* · Kim, Dong-Yeob** · Lee, Sang-Hwa* · Kim, Sung-Gi**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ABSTRACT

Rural areas dominate country landscape, where the population is rich in traditional and natural heritage. Dangsang forests and Rural community forests (RCF) have been maintained by local residents for hundreds of years. However, many of these forests have been disturbed, and only small amount of Dangsang forests and the RCF remain due to the efforts of local residents. Recently, the remnants of Dangsang forests and RCF have been regarded as living traditional landscapes representing the cultural and rural background of Korea. But the value of Dangsang forests and the RCFs has not been recognized by man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status of Dangsang forests in Sungnam-ri, Wonju. Sungnam-ri has four villages, each of which is bordered by a Dangsang forest at the riparian buffer. Sungnam-ri has been selected as a site for a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of Korea. Sunghwanglim (the Upper Dangsang forest) is designated as Natural Monument No.93 and entrance is limited in this area. The size of Sunghwanglim is 21,133m², and the major tree species are *Kalopanax pictus* (Dangsang tree, Divine tree), *Pinus densiflora*, *Abies holophylla*, *Acer triflorum*, *Ulmus davidiana*, *Fraxinus rhynchophylla* and *Quercus serrata*. In total, 124 trees with more than 40 cm in DBH are at this site. As for cultural activities, the Dangsang festival is held on April 8th and September 9th of the lunar calendar at shrines in the forests. Although other Dangsang forests are smaller than Sunghwanglim, they also have similar cultural activities. The landscape of the Dangsang forests have been managed for several hundred years by the local people, and they intend to continue maintaining the Dangsang forests for the purpose of festivals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The findings in this study suggest that Dangsang forests have the pot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villages and for the improvement of cultural and natural landscapes in Korea.

Key Words: Sunghwanglim, Dangsang Festival, Riparian Buffer, Rural Landscape Policy

Corresponding author: Jai-Ung Choi,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won 441-853, Korea, Tel.: +82-31-299-0541, E-mail: choiju@rda.go.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는 적으나 국토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연경관과 전통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나라 40,000여 농촌마을 중 많은 수가 사라진 당산숲·마을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으로서, 수백 년 전 마을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마을주민들에 의해 보전·관리되고 있는 전통경관이며 실생활에 살아있는 문화공간이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풍부하게 하고, 공동체 문화로서의 전통문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당산숲·마을숲은 농촌경관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문화자산이다.

이러한 당산숲·마을숲은 일제강점기, 6.25 사변, 새마을운동 등 사회 변혁기에 크게 훼손되어, 그동안의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와 가치가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다. 농촌경관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농촌을 특징지을 만한 대표적인 경관이 어떤 모습인지 함의된 상(象)이 없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성주인, 2005). 그동안 당산숲·마을숲의 실체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는 마을숲을 『농어촌마을의 핵심경관』으로 인식하였으며, 경관자원, 휴양·휴식 공간 및 소득원으로 활용 가능성을 논하였다. 최근 들어 마을숲을 보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문화재청의 마을숲 문화재 지정사업, 2003년에 시작된 산림청의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2004년에 시작된 농림부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 만들기 10년 계획(2006~2015), 해양수산부의 아름다운 어촌 100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마을숲이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의 약화가 근본 원인이므로 마을숲의 실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조치에 앞서 마을숲에 깃들어 있는 문화적 의미와 행위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다(김학범, 2005). 경관생태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생물 및 생태적 측면과 함께 인간의 행태,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나정화, 2005). 당산숲·마을숲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마을 주민들의 당산숲·마을숲에 대한 의식과 생활문화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당산숲의 경관관리란 사회 변혁기 및 근래 당산숲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행정기관, 외지인 등의 외부 압력에 대해서, 당산숲을 조성한 당사자이며, 보전·관리의 주체인 마을주민이 당산숲의 경관구성요소¹⁾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왔는가 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원주시 성남리의 성황림(윗당숲) 등 당산숲의 현상

적 특성을 살피고, 성남리 주민들의 당산숲에 대한 인식과 마을 전통제례 행사가 당산숲의 보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사

그동안 당산숲·마을숲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조경학, 지리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다(유제현, 1979; 김덕현, 1986; 김학범, 1991; 이원열 등, 1992; 장동수와 이규복, 1997; 윤영환 등, 1998; 박재철, 1999; 최재웅과 김동엽, 2000; 남연화 등, 2002; 강현경 등 2004). 김학범(1991)은 마을숲은 마을사람들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담은 마을 공용의 녹지로 마을문화가 오랜 세월을 걸쳐 집적되어 온 상징적 대상물로서 마을숲내에는 마을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장식물들이 갖추어져 있는 사례가 많으며 공원 녹지의 한국적 원형이라고 하였는데, 일찍이 전국 100여개의 마을숲을 조사하여 특성, 가치 등에 대하여 논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마을숲 실태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최재웅과 김동엽(2005: 41, 53)은 우리 농촌마을의 중요한 경관구성요소로서 농촌경관을 논할 때 핵심사항이 당산숲·마을숲임을 강조하였으며, 당산숲·마을숲의 유무에 따른 하천환경을 비교·고찰한 결과, 당산숲·마을숲이 있는 하천경관은 앞으로 한국형 하천경관 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성남리의 성황림은 1933년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천연기념물 93호로 지정된 후로, 1962년 당국에 의해 '전형적인 온대 낙엽수림'이라는 사유로 재차 천연기념물 제 93호로 지정되었는데, 성황림에 대한 연구로서, 백길전(1999)은 인위적인 훼손이 심했던 성황림의 평지림(산 192, 193번지)과 훼손 정도가 다소 약했던 사면림(산 191번지)의 식생구조를 비교 조사한 바 있다. 성황림의 산림군집은 평지림은 졸참나무-복자기나무군집이고, 사면림은 고로쇠나무-층층나무군집인데, 평지림은 복자기나무-졸참나무군집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사면림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양한 온대 중부 수종들로 이루어진 성황림 중 평지림은 인위적인 훼손 등으로 인해 졸참나무, 복자기나무, 느릅나무 등의 수종을 제외한 타 수종들은 소수만이 살아남아 그 흔적만을 보이는데 반해, 사면림은 비교적 다양한 수종들이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성황림은 1989년 이래로 철책을 설치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해서 자연학습장 등으로 이용하고 성황림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황림의 출입금지는 당숲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외지인들이 숲에 놀러와서 벌였던 문란한 행락행태로부터 숲을 보호하기 위해 당국이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 파악된다.

성황림은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신성시되어 보호를 받았던 자연림으로서 당시 312,993m²이던 숲의 면적이 1960년대에 114,645m², 2000년대에는 54,314m²로 급격히 감소하여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남연화와 윤영환, 2002). 민유림 조립사업(1952) 등 수 차례에 걸쳐 숲에 가해진 조립사업은 외래수종을 도입하여 숲의 자연식생 변화를 가져왔으나, 1966년부터 외래수종 제거작업이 실시되어 어느 정도 원상 복구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설치한 보호방책과 외래수종 제거작업이 결국 성황림이 보존되어온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현재 '마을숲'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은 당산숲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당산제를 지내면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당산숲과 마을숲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했으며, 성남리는 마을숲이 따로 없고 모두 당산숲인 경우에 속한다. '당숲'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당산숲은 '마을주민들이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숲'으로서,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이다. 대부분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최재웅과 김동엽, 2005: 40). 마을숲·당산숲은 서로 별개로 있기도 하고, 당산숲이 마을숲의 역할을 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마을숲은 한 개의 마을에서 당산숲과는 별도로 자연재해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을 말하며, 이 마을숲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산제가 행해지지 않는다.²⁾ 그 동안의 논문에서 마을숲이 원래 마을마다 있었다는 것과 수변림이라는 언급은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본 논문은 그러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천연기념물 제93호인 성황림(윗당숲)을 중심으로 주포천 상하류에 인접해 있는 성남리 당산숲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연구를 시작한 1999년과 초기에는 성황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지속적인 답사와 기존의 연구자료 등 문헌조사를 통해 성남리에 성황림 이외의 당산숲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을 한데 묶어 조사함으로써, 당산숲이 원래 자연마을마다 존재하고 있었으며 하천과 인접한 수변림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당산숲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숲의 물리적 현황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 당산제 등 마을주민들의 숲과 관련한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는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조상들이 대(代)를 이어 물려준 당산숲이 현재까지 수백 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유지, 관리되어 온 원동력은 마을주민들의 당산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1999년, 2004년, 2005년에 성황림의 당산

제(성황제)를 참관하였고, 2007년에는 절골 산신당숲에서의 산신제에 참관하였다. 다른 두 개 마을에서는 주민들과의 면담 및 당집의 금줄 등 흔적을 통해 당산제를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사와 마을주민 면담 등은 수시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지는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로서, 성남 1리에는 자연마을인 아랫성남과 가둔지가 있으며, 성남 2리에는 윗성남과 절골이 있는데, 아랫성남에는 아랫당숲이 있고 가둔지에는 당산나무가 있으며, 윗성남에는 윗당숲인 성황림이 있고 절골에는 산신당숲이 있다(그림 1 참조). 네 개의 당산숲은 모두 지방 2급 하천인 주포천에 접해 있으며, 네 개의 마을주민들은 매년 숲 안에 있는 당집(성황당 및 산신당)에서 당산제를 지내며 숲을 보호·관리하고 있다.

조사항목으로 마을주민들이 지내는 당산제 및 관리 실태, 각 당산숲의 면적, 공간 형태, 수목의 종, 수 및 흉고직경을 전수 조사하였다. 성황림 이외 숲의 면적은 직접 실측하였다. 성황림은 천연기념물 93호로 지정되면서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면적이 넓고 그 형태가 불규칙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숲의 전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말 Trimble사의 DGPS기기인 Pro-X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후 연구실에서 Trimble사의 GPS 보정 및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인 Pathfinder Office 3.0을 이용하여 보정하였으며, 데이터 편집은 Autocad 2000으로 처리를 하였고, 수취한 데이터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1/5,000 수치지형도와 중첩시킨 후 위치도를 작성하였다. 면적과 둘레길이는 아크뷰(ArcView3.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성황림의 수목조사는 2004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일곱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일곱 개의 구역은 숲 내의 지류 등 지형, 햇빛 등 숲의 이용 행태, 같은 수목이 모여 있는 정도 등에 따라 나누어 본 것으로서, 조사의 편리성을 위한 것뿐 아니라 숲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수목은 노거수 위주로 조사하였으며, 소나무 등 침엽수는 흉고직경 30cm 이상, 낙엽활엽수는 흉고직경 40cm 이상인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흉고직경의 측정에서 현재 시판중인 측정기기는 보통 흉고직경 50cm까지만 측정이 가능하며, 105cm 길이의 기억 자 형 도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아랫당숲과 가둔지는 2005년에 수목조사를 하였고, 2007년에 보완 조사하였다. 절골은 2006년에 답사에서 마을주민과 면담한 후, 2007년 수목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수목조사는 숲의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향후 숲의 변화과정 파악 및 앞으로의 경관관리 방안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결과 및 고찰

1. 성황림(윗당숲) 등 성남리 당산숲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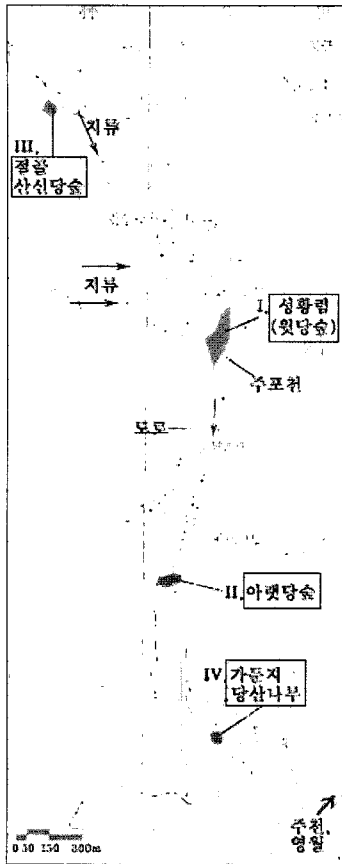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지의 위치

성남리의 당산숲은 성남 2리인 윗성남에 성황림(윗당숲)과 절골의 산신당숲이 있으며, 성남 1리 아랫성남에는 아랫당숲과 가둔지의 당산나무가 있다. 네 개 마을의 당산숲 모두 주포천 및 지류에 접해 있는 수변림이다(표 1 참조).

1) 성황림(윗당숲)

그림 2는 1/5,000 지형도에 성황림 외곽선을 표시하고, 내부 구조를 기입한 것이다. 당산숲인 성황림의 면적은 21,133m²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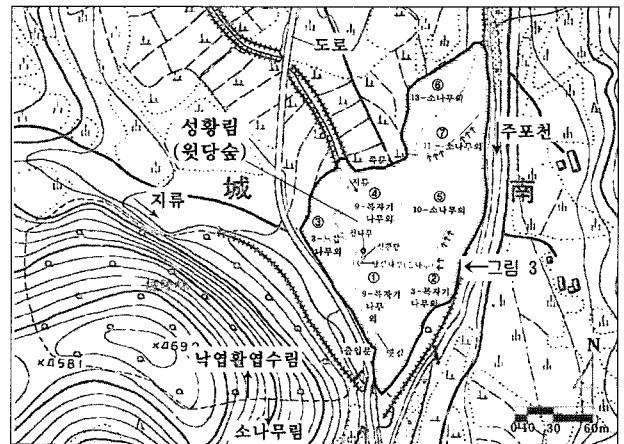


그림 2. 성황림 현황도

으며, 철책으로 둘러싸인 외곽선의 둘레길이는 720m였다. 숲의 외곽선 형태는 그림 2에서 보듯이 좌측은 마을길에 의해 사면림과 나뉘어져 있고, 우측은 주포천이 숲의 경계선이다. 주포천에 접해 있는 부분의 숲 길이는 약 320m로 수변림(Riparian buffers)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3-a에서 보듯이 성황림은 차폐기능을 하고 있는데, 성황림으로 인해 마을 밖에서는 마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북쪽은 경계가 불규칙하게 농경지와 접해 있는데, 남연화와 윤영환(2002)의 고찰에서 보듯이 이 부분의 훼손, 소실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출입문에서 시작하는 숲 내 옛길은 271m이고, 성황당이 있는 지점의 숲 폭은 약 110m이었다.

성황림은 일곱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각 구역의 현황은 그림 3과 같으며, 그림 2에 표기된 수목명은 그 구역에서 수가 가장 많은 수종이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 ①구역은 출입문에서 시작하여 숲 내 지류와 옛길 사이로 당산나무, 전나무 및 성황당 외에 복자기나무 9그루, 느릅나무 2그루, 졸참나무 1그루, 고로쇠나무 1그루, 귀룽나무 1그루, 층층나무 1그루가 있었다. 그림 3-b를 보면 흉고직경이 110cm인 당산나무(음나무)는 성황당 좌측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흉고직경

표 1. 성남리 당산숲의 현황

당산숲	당산제 (음력)	면적 (m ²)		수종 및 그루 수(주)	평균흉고 직경(cm)
		도로 우측	도로 좌측		
성황림(윗당숲)	4월초파일, 9월 9일	21,133		음나무(당산나무) 1, 전나무 1, 소나무 40, 복자기나무 27, 느릅나무 25, 물푸레나무 13, 졸참나무 7, 왕버들 5, 층층나무 2, 고로쇠나무 1, 귀룽나무 1, 상수리나무 1	활엽수 59 소나무 63
아랫당숲	4월초파일, 9월 9일	도로 우측	612	소나무 6	75
		도로 좌측	1,925	소나무 9	65
절골 산신당숲	3월보름, 9월보름	780		소나무 24	47
가둔지 당산나무	4월초파일, 9월 9일	-		음나무(당산나무) 1, 말채나무 2	78



그림 3. 성황림 현황

130cm인 전나무가 성황당 우측에 있으며, 성황당 앞에 다섯 그루의 복자기나무가 있었다. ②구역은 그림 3-c의 길 좌측으로서, 출입문에서 시작하여 옛길과 주포천 사이에서 전나무와 만나는 지점까지로 복자기나무 3그루, 졸참나무 3그루, 소나무 3그루, 물푸레나무 2그루, 느릅나무 1그루, 상수리나무 1그루가 있었다. ③구역은 그림 3-d와 같이 숲 내에 있는 수로폭 2m의 지류와 도로 사이로서, 느릅나무 3그루, 왕버들 2그루, 물푸레나무 1그루가 있었다. ④구역은 그림 3-g와 같이 쪽문 위쪽 옛길의 좌측으로 소나무 13그루, 느릅나무 6그루가 있었다. ⑦구역은 쪽문 위쪽 옛길의 우측으로 소나무 11그루, 복자기나무 1그루, 느릅나무 1그루가 있었는데, 그림 3-h는 주포천에서 바라본 가장자리의 소나무 모습이다. ④구역은 ①과 ⑥의 사이로 복자기나무 9그루, 느릅나무 8그루, 물푸레나무 4그루, 왕버들 3그루, 졸참나무 2그루, 소나무 1그루가 있었는데, 그림 3-e는 ④구역의 지류 변에 있는 왕버들이다. ⑤구역은 ②와 ⑦구역의 사이로 소나무 10그루, 물푸레나무 5그루, 복자기나무 4그루, 느릅나무 3그루, 졸참나무 1그루, 층층나무 1그루가 있었다(그림 3-f 참조). 한편, 숲 끝의 도로가에 느릅나무 1그루가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고, 사면쪽 도로가에 소나무 2그루, 복자기나무 1그루, 물푸레나무 1그루가 있었다. 성황림의 수목은 음나무(당산나무) 1그루, 전나무 1그루, 낙엽활엽수 82그루, 소나무 40그루 등 총 124그루였다. 전체 임상은 낙엽활엽수림이었으나 단일수종으로는 소나무가 가장 많았다. 소나무 노거수는 ⑥과 ⑦구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복자기나무는 성황당 부근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왕버들은 위쪽의 지류변에 분포하고 있었다. 평균흉고직경은 낙엽활엽수 59cm, 소나무 63cm였다. 성황림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생 초본류가 많이 있었으며, 특히

지류 근처에 많이 나타났다.

당산숲·마을숲의 조성 관점에서 보면, 사면림은 자연림이지만 평지의 당산숲은 몇 백년 전 조성 당시에 주변의 자연림인 사면림 등에서 옮겨 심은 것으로서 인공식재에 의한 인공림인데, 이 같은 사실은 마을주민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는 숲의 유래나 본 연구에서도 평지림은 같은 수종이 무리지어 있는 등 인공림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백길전(1999)은 평지 성황림의 산림군집이 졸참나무-복자기나무군집에서, 복자기나무-졸참나무군집으로 천이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앞으로 철책이 제거되면 사람의 보호활동과 간섭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2) 아랫당숲

아랫당숲은 도로로 인해 2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1/5,000 지형도에서 도로 좌측에 '당숲'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그림 4-a 참조). 도로 우측의 숲은 34×22m 크기이며 평균흉고직경이 75cm 인 소나무 6그루 뒤에 성황당이 있고 그 앞으로 지류가 흐르고 있다. 아랫당숲은 그 위치가 주포천 및 지류에 접해 있는 수변림이다. 윗성남과 마찬가지로 아랫성남은 이 당숲으로 인해 외부의 시야로부터 가려져 있다. 6그루의 소나무 중 3그루는 민가의 울타리 안에 편입되어 있었다. 성황당은 상량문에 '서기 1966년 4월 6일'이라 적혀 있었다. 황토 벽체의 한쪽 벽면은 합판으로 막아 놓았으며, 지붕은 함석슬레이트이고 내부의 바닥은 맨 땅으로 되어 있었다.

도로 좌측의 숲은 55×35m 크기이며 평균흉고직경 65cm인 소나무 9그루가 있고, 주변의 활엽수 가운데 줄기가 잘린 참나무류 몇 주가 있다. 숲 한쪽 편에 희미한 글씨로 '천연기념물



그림 4. 아랫당숲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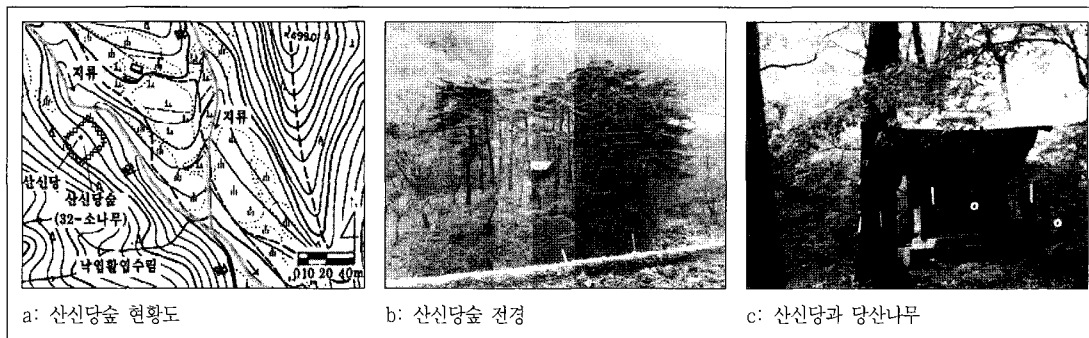


그림 5. 절골 산신당숲 현황

수림지'라는 표석이 남아 있었는데, 이 숲은 이전에 성황림과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1972년 수해 때 하천변 식생이 많이 유실되면서 천연기념물에서 제외되었으며, 당숲에서 유원지로 그 역할이 바뀌었다(그림 4c 참조).

3) 절골 산신당숲

절골 산신당숲은 30×26m크기이며, 평균 흉고직경 30cm 이상의 소나무 24그루로 되어 있었고, 숲 주변은 낙엽활엽수림이었다(그림 5-b 참조). 산신당숲은 그림 5-a 및 5-b에서 보듯이 주포천의 지류가 흘러 내리면서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점에 위치한 수변림인데, 그 위치상으로 볼 때 홍수 피해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은 아니다. 절골이라는 지명은 당집 입구 쪽에 있는 석남사 유적지비(石南寺 遺蹟址碑)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산신당에는 신선 등을 나타내는 벽화가 있다. 산간마을에서 눈을 확보하기 위해 석남사 유적지비와 당숲 사이에 축대를 쌓고 성토하여 눈을 조성하였다. 산신당숲의 당집은 산신당이며, 위패에는 '사동산신(寺洞山神)'이라고 써 있었다. 절골에는 집 다섯 채 중 세 집과 아래 동네인 성남 2리에서 오는 사람들과 함께 음력 3월 보름, 9월 보름에 제를 지내고 있으며 산신제를 지내는 계원은 13명이다.

4) 가둔지 당산나무

가둔지는 성남리의 입구마을로서 도로에서 54m 지점에 흉

고직경 125cm의 당산나무(음나무) 1주가 있고, 그 앞에 성황당이 있다. 당산나무 외에 흉고직경 60, 50, 22cm의 말채나무 세 그루가 성황당 앞뒤에 남아 있는데, 기타 주변의 수목들은 도로를 건설하면서 또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유실된 것으로 보였다. 마을주민들에 의하면 이전에는 당산나무 앞으로 작은 개울이 흐르고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 다녔으나, 20여 년 전 시멘트 포장길을 만들면서 개울물이 암거수로를 통해 길 맞은편으로 흘러 주포천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배수로를 흐르는 물의 양도 아주 적고 개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으나, 원래의 모습은 수변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그림 6-c 참조).

2. 성남리 당산숲의 경관관리 실태 고찰

1) 당산제

당산제는 당산숲이 현재까지 수 백년 이상 대를 이어 보존·관리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다. 성황림의 경우, 원주시의 안내판(그림 8-a 참조)에 기록된 대로 '성황림은 마을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치악산의 성황신을 모시고 있는 신성한 곳'을 상징하며, 마을의 운명이 당산숲의 흥망과 같이 한다는 믿음으로 수백 년을 지켜온 것이다. 그림 7-a는 윗성남의 성황림에서 1999년 음력 9월 9일에 지내는 당산제 모습인데, 성황당에서 제를 올린 후 바로 좌측에 있는 당산나무인 음나무에도 제물을



그림 6. 가둔지 당산나무 현황

차리고 제를 지낸다. 이것은 절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황림을 포함한 당산숲에서 당산나무가 가장 중요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7-b는 2005년경 아랫당숲의 성황당 내부로서 당산제를 지낸 흔적이 있고, 그림 7-c는 2005년의 가둔지 성황당과 당산나무로서 내걸린 금줄을 통해 당산제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가둔지 성황당은 최근에 외부의 도움없이 마을주민의 힘으로 신축되었다. 그림 7-d는 절골에서 2007년 음력 3월 보름 산신제를 마친 직후로서, 당산나무 앞에 차려졌던 제물을 수거하기 전 모습이다.

2) 관리 · 이용 실태 및 문제점 고찰

(1) 성황림(윗당숲)

천연기념물 제 93호로 지정되면서 철망 울타리로 봉쇄되고

출입이 금지됨으로써 훌륭한 문화유산이 격리되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호방책으로 인해 성황림이 현재까지 보호될 수 있었다(남연화와 윤영환, 2002). 외부에서 와서 물놀이 하는 경우에도 철망과 경고문 때문에 함부로 숲에 들어가지 못한다(그림 8-c 참조). 이곳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계획에서 생태학습원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귀중한 문화자원이 묻혀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채 개방된다면, 아랫당숲과 같이 유원지화 되는 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개방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젊은 층과 상점 운영자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이지만 이미 외지인들의 행태를 경험한 토박이 어르신들은 당숲과 마을 분위기가 나빠질 것을 걱정하여 반대하는 편이다. 성황림 경관관리의 핵심은 당산숲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을주민들이 성황림에 애착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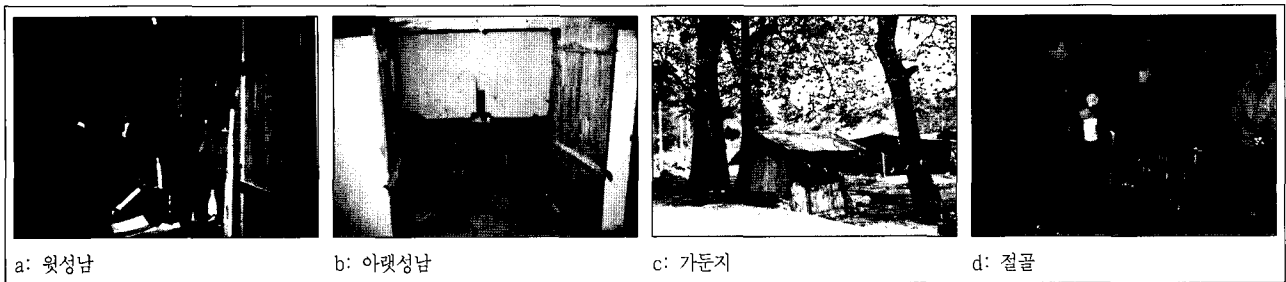


그림 7. 각 마을의 당산제와 흔적

표 2. 성남리 당산숲의 관리 및 이용실태

위치	시설물	이용실태	문제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에 의한 계획	
성황림 (윗당숲)	성황당 (3.2×2.9m)	출입금지 (울타리)	철망속에 방지됨	생태학습원으로 개방	
아랫당숲	도로 우측	성황당 (2.0×2.0m)	-	민박집이 숲을 잠식	공원 조성
	도로 좌측	하천변 공터 (135×32m)	유원지화	당숲의 기능 상실	
절골 산신당숲	산신당 (2.8×2.5m)	-	-	-	
가둔지 당산나무	성황당 (2.6×2.6m)	-	주변에 건축물 난립	-	



그림 8. 성황림의 관리 및 이용현황

을 보이는 이유는 성황림이 당산숲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산숲·마을숲은 다원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 자체로 특별한 시설물의 도움 없이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생태학습원으로 쓰일 수 있다. 개방 시 출입을 제한하는 경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생태학습원을 위한 숲 내 시설물은 방문객들의 이동을 위해 지면에서 일정한 높이로 조성한 목재 데크 정도로 족하다. 숲 내에 다양한 종류의 회귀 초화류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데크 이외의 지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시설물을 과도하게 조성하여 당숲의 성격을 변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 아랫당숲

도로 좌측 숲 앞의 주포천은 여름철 외지인들의 물놀이로 유원지화 되었고, 당산숲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숲과 주포천 사이에 135×32m크기의 공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용시설로는 이동식 간이화장실 두 개와 숲 안의 휴식용 정자 두 개가 있다. 성황당이 있는 도로 우측의 숲에도 여름에 외지인들이 출입하고 있다. 도로 좌측 숲과 달리 이곳은 당산숲으로 지켜져야 할 위치인데,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민박집에서 설치한 그물망 울타리는 숲을 잠식하고 있다. 아랫당숲은 바로 치악산국립공원으로 연결된다. 이곳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공원으로의 이용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현재 아랫당숲이 당산숲의 기능을 상실하고 유원지화 된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당숲으로 남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숲 기능을 유지하도록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 좌측의 공터와 주포천변은 방문객에게 개방하더라도, 숲 내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를 조성하여 숲 내에서 일체의 훼손 행위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성황당이 있는 도로 우측의 숲은 좌측의 숲보다 더 잘 관리되어야 하며, 숲을 잠식하고 있는 민박집 울타리를 제거하고, 숲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경계를 조성하고, 성황당 앞 지류 주변에서 취사, 야영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낮은 성황당은 신축할 필요가 있다.

(3) 절골 산신당숲

이 숲은 지류 건너편에 위치하여 외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 의해 잘 보전되어 왔다. 그러나 일반에 알려지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 특히, 지류에 접한 부분의 지반이 단단하지 못하여 토양유실 및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문객들의 출입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

(4) 가둔지 당산나무

마을 주민들이 잘 보호하고 있으나 당산나무와 말채나무 세 그루만이 남아 있다. 주변의 지면은 콘크리트로 피복되어 있고, 주위에 건축물 등이 신축되고 있다. 주변의 건축물 신축 등으로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면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마을주민에 의하면 당산나무 주변은 그 모습이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는데 기능 제고를 위해서, 주민 의견 및 보다 심층적인 고증을 거친 후 마을 주변에 넓게 서식하고 있는 말채나무 등으로 보식을 하여 작으나마 숲의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당산제의 문화적 의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경관직벌제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자국 농촌의 전통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경관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당산숲·마을숲은 농촌의 문화와 전통경관에 대한 보전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인 당산숲·마을숲을 보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당산제 등의 생활문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³⁾는 여러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매년 거행하는 당산제는 우리 농촌공동체의 주체역량과 결속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시 성남리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대상지이며, 2005년도에 선정된 대상지 중의 한 곳인 원주 황둔·송계 권역(원주시 신림면 황둔리, 송계리, 성남리)에 속하는 마을인데, 당산숲이 있는 성남리에 대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당산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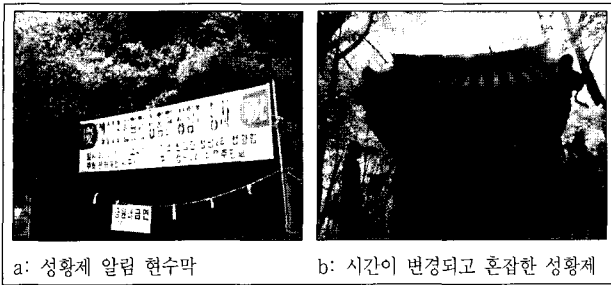


그림 9. 당산제(성황제)의 변질
자료: a: 2005년, b: 현재

에서 거행되는 당산제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2004년까지 소박하지만 의미있었던 성황림에서의 당산제(그림 7-a 참조)는 2005년 음력 4월 8일에 열린 성황제(당산제)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면서 한낱에 제를 시작했고, 제를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 간섭이 뒤를 이어 결국은 변질된 관제행사로 끝나고 말았다(그림 9 참조).

마을주민들이 행하는 당산제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자기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자발성에 그 의의가 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당산제는 현재에 와서는 그 자체가 실생활에 살아 있는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며, 전통축제로서 농촌마을의 활력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당산제가 관(官)의 간섭 등에 의해 그 순수성과 원형이 변질된다면 당산숲을 지켜나가는 힘도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관은 당산제를 이용한 전시행정을 지양해야 하며, 주민들도 당산제의 취지와 원형을 훼손 없이 지켜 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IV. 결론

본 논문은 천연기념물 제93호인 성황림(윗당숲)을 중심으로 주포천 상하류에 인접해 있는 성남리 당산숲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성남리는 이 지역이 치악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관계로 난개발이 방지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성남리 4개 마을의 당산숲과 하천의 관계를 통해 당산숲이 하천변에 위치한 수변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상들이 대(代)를 이어 물려준 당산숲이 현재까지 수 백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유지, 관리되어 온 원동력은 마을주민들의 당산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둔지부터 절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주포천을 따라 있는 4개의 당산숲 구간을 잘 관리한다면 전통 및 환경교육 장소로 지역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리 당산숲은 수 백년간 이어 온 마을 자체의 불분율에 의해 현재까지 유지, 관리되어 왔으나, 외지인들의 무절제한 이용에 의한 훼손을 주민들 힘만으로 막기에는 역부

족이다. 당국에서는 향후 농촌마을의 환경과 경관관리 측면에서 당산숲을 수 백년간 보전해 온 주체가 마을주민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야 하며, 이들이 주체적으로 당산숲·마을숲을 보다 잘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마을주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자연보호법 등에 따라 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나, 당산숲을 보호,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경관직책제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등 마을주민이 당산숲·마을숲의 보전, 관리, 활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마을이 유지하고 있는 당산숲·마을숲의 실체와 가치에 대한 행정기관, 일반 도시민의 인식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주 1. 당산나무를 비롯한 수목, 인공시설물인 돌탑과 성황당이 당산숲의 3대 경관구성요소로 제안된 바 있다(최재웅과 김동엽, 2000). 당산숲은 당산나무를 비롯한 수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가 하나의 당산숲에 모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당산나무를 비롯한 수목에 두 개의 시설물 중 하나가 더해져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당산숲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당산제를 지낼 때 3대 경관구성요소에는 모두 신성한 대상을 나타내는 금줄을 치게 된다. 당산나무 이외의 수목도 소중히 관리하였으나, 설령 숲내의 다른 나무가 훼손되는 경우에도 당산목만은 절대 훼손할 수 없는 성역이며, 돌탑과 성황당도 마찬가지이다. 당산나무는 보통 숲내에서 가장 수령이 오래된 경우가 많으며 숲내의 다른 나무와 달리 마을주민에 의해 신성성이 부여된 나무이다. 당산나무가 고사하는 경우 부근의 아무나무나 당산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의 어린 수목을 고사한 자리에 심고 당산나무로 여긴다. 당산나무로는 오랜 수명을 가지고 있는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등이 대표적인 수종인데, 윗당숲과 가둔지의 예처럼 읍나무도 당산나무로서 종종 발견된다. 옛사람들은 줄기에 가시가 있는 읍나무가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영험이 있는 나무로 알고 신성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황림이라는 용어는 1962년도에 당국에서 윗당숲을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하면서 당산숲이라는 이름 대신에 성황당이 있는 숲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 2. 성남리의 경우와 같이 마을숲이 따로 없고 당산숲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한 개의 마을에 당산숲과 마을숲이 각각 존재하는 경우 또한 많은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산숲과 마을숲 모두 수변에 위치한 수변림이나, 당산숲은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신이 사는 신성한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마을숲은 자연제방의 수변에 선형으로 배치되어 수해 등으로부터 마을과 농경지를 보호한다는 실질적인 기능이 강하다(최재웅과 김동엽, 2006). 당산제는 일반적으로 당산숲에서만 행하여지고 마을숲에서는 생략된다. 이용실태를 보면 마을주민들은 당산제 기간 이외에는 당산숲에 함부로 출입하는 일을 삼가고 있는데, 또한 외지인들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마을숲은 여름에 마을주민 및 외지인들의 휴식 및 물놀이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조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개의 마을에서 당산숲과 마을숲이 거의 동시에 조성되거나, 당산숲이 먼저 조성되고 그후에 보조적으로 마을숲이 별도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신목(神木)으로서의 당산나무는 삼국유사 등의 신화에도 나타날 정도로 그 유래가 장구하며, 오래 전 마을주민들의 입장에서 마을에 정착함과 동시에 마을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의 존재가 함께 하기를 염원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산숲은 수해방지 기능과는 상관없는 작은 장방형의 형태

로도 많이 나타난다. 한편, 마을숲은 마을에 정착한 후에 홍수 피해 등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 대비책으로 조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3. '경오년 수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군위군 한밤마을은 공간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복구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숨어 있는 노력이 곳곳에 배여 있다. 현재 마을사람들은 제사 및 마을 동제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있는데, 동제는 마을축제로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을주민들의 의식이 자 경험을 통해 나타난 삶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러한 것이 한밤마을의 고유한 풍습으로 자리잡고 있다(심근정 등, 2003). 동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 숨쉬는 우리의 전통생활문화, 건강한 미풍양속의 공동체문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마을주민들이 마을숲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동제를 통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마을숲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최재용과 김동엽, 2003) 한밤마을의 의례경관(儀禮景觀)이 담고 있는 의미는 풍수적 측면(風水의 側面)의 기(氣)와 토착 신앙(土着信仰)의 신(神)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하는 마을사람들의 미적(美的), 총체적(總體的) 경관의식(景觀意識)에 있다. 마을사람들은 경관을 기(氣)나 혼(魂)이 내재한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마을경관을 신성화(神聖化)하여 그 경관에 의지하여 신(福)을 얻고 자신들의 불안(不安)과 재앙(災殃)을 막고자 하였다. 또한, 발생된 불행(不幸)의 근거도 주변의 경관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아 대처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의례경관의 의미 발견은 우리나라의 환경개발 과정에서 이용자와 계획가 사이의 의견차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장동수, 2001).
- 주 4. 2007년 3월에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5차 농촌개발 국제회의에서는, 농촌공동체의 주체역량과 결속이 농촌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그것의 제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거론된 바 있다.

인용문헌

1. 강현경, 방광자, 이승재, 김학범(2004) 생육환경 분석을 통한 마을숲의 관리방안 -경상도와 강원도의 주요 마을숲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2(2): 63-74.
2. 김덕현(1986) 전통촌락의 洞蔽에 관한 연구 - 安東 내암마을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3: 25-33.

3. 김학범(1991)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 김학범(2005) 마을숲과 문화, 전통마을숲의 이해와 복원운동의 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pp. 5-22.
5. 나정화(2005) 경관 생태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을 통한 도입 가능성과 한계성, 한국조경학회지 33(4): 45-70.
6. 남연화, 윤영환(2002) 시대적 배경을 통해 본 마을 숲의 변천과 보존 -성남리 성황림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정원학회지 20(2): 23-32.
7.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8. 박재철(1999) 농촌정주생활권내의 마을비보숲과 마을엮터숲의 비교 고찰-진안군 지역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27(3): 32-38.
9. 백길전(1999) 성황림(원주시)의 식생구조 및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천연기념물 제93호-,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성주인(2005) 농촌경관 관리실태와 정책방안, 농촌경관 전문가 Workshop 자료집, pp. 105-159.
11. 심근정, 김재호, 김수봉(2003) 산사태 발생지역의 경관변화와 주민의 식-1930년 팔공산 산사태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1(3): 42-53.
12. 유제현(1979)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여주·이천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6: 96-115.
13. 윤영환, 김학범, 장동수, 김정태(1998) 강원도 동해안지역 정주지 구성요소로서 풍숲(風蔽)의 경관과 그 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1): 59-81.
14. 이원열, 서호석, 이대섭, 조현재(1992) 전통생활환경보전림의 실태 및 보존대책, 임업연구원보고서, pp. 25-33.
15. 장동수, 이규목(1997) 경주·포항시 전통도시숲(읍수·임수)의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1): 1-15.
16. 장동수(2001) 한밤마을 儀禮景觀의 意味,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9(1): 1-10.
17.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표부(2007) 제5차 농촌개발 국제회의의 결과, 주OECD대표부 보고자료.
18. 최재용, 김동엽(2000)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3): 51-64.
19. 최재용, 김동엽(2003) 농촌 문화경관으로서 강릉시 구정리 마을숲의 경관 특성, 국토계획 38(4): 171-181.
20. 최재용, 김동엽(2005)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마을숲의 경관생태학적 기능 고찰, 환경정책연구 4(2): 31-55.
21. 최재용, 김동엽(2006) 농촌 문화경관 관련시책과 마을숲·당산숲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4(3): 41-58.

원 고 집 수: 2007년 4월 27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7년 7월 9일
 4인 의 명 심 사 필